

한국판 그린뉴딜 실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노력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2020. 7. 15.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20. 8. 7.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①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②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③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②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출처: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202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7월 15일 보도자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분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안전망 구축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6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거나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심사회를 지향점에 둔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과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구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화를 진행하며, 미세먼지 차단숲·생태복원 사업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통해 녹색 생태계 회복에 앞장선다.

이 외에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1,229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위한 민간전문가 그룹 출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7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그룹인 ‘그린리모델링 총괄기획가’를 선정하였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및 의료시설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의 추천을 통해 총 17인으로 구성된 총괄기획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하거나 관리하게 된다.

이에 에너지 성능 개선(30% 이상)과 미세먼지 저감(75% 이상) 등 그린리모델링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인 총괄기획가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지역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공공기관 공모를 진행하여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모두 718건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3,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 탄소순배출이 0인 상태